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
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편 84편4
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성경읽으며 여름을 보내자

계절학교 · 수양회 · 휴가를 효과있게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왔다.
더운 여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성경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보자.
휴가기간에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계절학교와 수양회 행사에 봉사하고, 알뜰한 피서계획으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성경읽는 일에 시간을 바쳐 정독하며, 하늘의 만나에 심취하면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바른 신앙생활에 쫓겨보자.
바쁘다는 핑계로 등한시했던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이번 기회에 찾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자.

학원선교회 창립 초대회장에 안병호집사 선임

본교회 학원선교회가 창립되어 초대회장에 안병호집사(경기, 연천 왕산국민학교 교감)를 선임했다.
지난 9일 오후 3시 전도위원회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학원선교회에서는 학원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안병호 집사
부회장 유치=미정
초등 = 최형렬 선생(경기여주교)
중등 = 조삼원 집사(개원중학교)
고등 = 홍성주 집사(동대문상고)
총무 김단용 집사(해성여중)
서기 천기성 선생(남강고)
회계 김영숙 집사(공덕국교)

소년부 계절학교 처음으로 기도원에서

교회학교 소년부(부장/노문환장로)는 오는 7월24일부터 26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계절학교(여름)를 개최한다.
처음으로 기도원에서 갖게되는 소년부 계절학교는 제36회 여름성경학교로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로 개최한다.
참석자는 1인당 8,000원의 참가비를 받게 된다.

교구조정위원회 구성 불합리한 교구 재조정

교구위원회(위원장/우기전장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교구를 재 조정을 위한 교구 조정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정 대상 교구는 4교구를 비롯하여 6교구, 7교구, 12교구이며, 조정연구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이세열목사(교구위원회 지도교역자), ▲손동운장로(교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용장로(교구위원회 서기), ▲김영구목사(6교구 담당목사), ▲이원길목사(7교구 담당목사), ▲김성윤목사(12교구 담당목사), ▲이웅선장로(4교구 교구장), ▲강순용장로(6교구 교구장), ▲강모용장로(7교구 교구장), ▲김재명장로(12교구 교구장), ▲임태주전도사(4교구 담당전도사), ▲김정순전도사(6교구 담당전도사), ▲유순화 전도사(7교구 담당전도사), ▲최순복전도사(12교구 담당전도사).

지원교회 돕기로 중·고·청년1, 2부에서

교회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 1,2부는 3군데 지원교회를 선정하고, 전도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으로 지원기로 했다.
선임된 3교회는 다음과 같다.
▲서송원교회(민춘화 전도사 시무) 충북 영동 황간소재(중등부에서 지원)
▲거학교회(이희도 목사 시무) 경남 거창 군소재(고등부에서 지원)
▲예동교회(김성찬 목사 시무) 경남 거창 군소재(청년 1,2부에서 지원)

복사기 기증 익명의 성도가

본교회 사무국에 코리아 제록스 복사기(값 350만원 상당) 1대를 익명의 성도가 기증했다.

본교회 부목사 3명 초빙 김창수 · 최인근 · 김은태 목사

지난 7월 9일 오후 8시 30분 본당에서 가진 임시당회에서는 부목사 3명을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선임된 부목사 3명에 대한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김창수 목사(31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졸업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M.Div)
총신대 대학원 수료(Th.M)
1985년 10월 목사안수
② 최인근 목사(37세)
총회신학대학 신학과 졸업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M.Div)
총신대 대학원 수료(Th.M)
1985년 10월 목사안수
③ 김은태 목사
연세대학교 중문과 졸업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M.Div)



▲ 권사회 수요일 철야기도회가 매주 기도원에서 회집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 205명의 권사들이 참석하여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 특별기도를 했다.



▲ 충현 새가족 환영회(6월 등록자)가 지난주간에 있었다.

N.M.C 성가병원 전도대 제14차 하기전도 갖기로

대학부 N.M.C 성가병원 전도대는 오는 7월31일부터 8월5일까지 부산과 전남 고흥군 소록도지역에서 하기전도를 실시한다.

충현법조인 선교회 매월 월례회 개최

충현 법조인 선교회에서는 매월 첫 금요일에 월례회를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7일 오후 7시 보뜨레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의 초청자는 김공식 집사(변호사)였으며 1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지도교역자인 정규남 협동목사의 인도로 예배드리며 귀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조인 선교회의 법률상담의

현황을 논의하며 새로운 회원 영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충현 법조인 선교회에서는 매주일 정오 12시30분~오후3시까지 본당 404호(다락방)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교우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또한 충현교회에 출석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은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헌신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다.(연락: 충현 법조인 선교회 회장 김광삼 집사, 전화 648-7469)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 위임목사의 해외여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7월 24일(월)~28일(금) 세계신약학회(아일랜드, 더블린)
▲7월 29일(금)~8월 2일(수) 세계복음서학회(아일랜드, 더블린)
▲8월 11일(금)~8월 13일(주일) 워싱턴 북음화대회(미국 워싱턴)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②



본문 / 요 5:10-18

세상에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학문, 예술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말이나 글로 논쟁을 벌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건설적인 논쟁도 있지만 대개는 무의미한 논쟁이 많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은 사람만 피곤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틈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건설적인 일을 오히려 파괴시키며 후세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은 승산이 없는 논쟁입니다.

1. 안식일 논쟁

예수님이 베데스다못의 38년된 병자를 살리신 사건은 소망없는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신 굉장한 일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으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18절). 이것을 안식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방법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법을 지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밤에 체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까 새벽에 체포하려 했습니다. 유월절에 체포하면 그것도 법에 어긋나니까 유월절에 죽여버리려고 유월절 전에 체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법이 무너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에굽에 포로로 잡혔었다가 출애굽한 사건에서부터 안식일 기념이 다시 한번 정립되는데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주신 열가지 계명 가운데 네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에 대한 명령-예레

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안식일을 범한 것에 두고 있다(렘 17:21)-입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안식일을 범한 것에 두고 있다(렘 17:21)-입니다.

안식일 개념 속에는 창조질서와 구원개념과 구원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그림자가 안식의 개념입니다.

3. 안식일의 정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 날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않기 위해 일천 걸음 이상은 여행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걷지 않습니다. 짐을 나르지 않기 위해(렘 17:21 이하, 느 13:15 이하) 몸에 붙어있지 않는 것을 운반하는 것을 노동이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른 날의 주인도 되시지만 특별히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였다는 뜻이요 또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분이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하신 분이요 주님이시라는 뜻이다-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셨듯이 우리의 생명이 구별하셨으므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물질도 구별되어서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 안식의 규례에 얽매어서 안식의 범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범정신을 잊어버리고 법을 판단하거나 법의 기본정신을 상실한 채 법을 해석하는 법률가가 있다면 그는 법률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안식의 법을 만들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희생 보다는 자비를 원하셨습니다. 눈먼 소경이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지만, 오늘은 안식일이니 노동해서는 안된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셨지, 사랑

을 원하셨으니 아무 일도 않고, 낮잠이나 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자를 위로하며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법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습관, 취미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내 생명이 빌려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4. 주일의 의미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부활의 종교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일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승천을 예고하신 날이 주일이요(요 20:17),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날이 주일입니다. 엠마오 제자들과 떡을 나누던 때도 주일이었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뜨인 날도 주일입니다(눅 24:45). 예수님께서 세계선교를 명령하신 날도 주일이요(요 20:21), 무엇보다 성령이 강림하시므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 주일입니다.

요한이 밧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이요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설교하도록 명령하신 날이 주일입니다(행 20:6).

또한 주일엔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고전 16:2).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보면 주일은 하나님께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중생의 은혜와 미래사건을 예표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초월한 높은 사랑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는 자들이 되지 말고 법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식일에 동참하여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승산없는 논쟁

고 규정했으므로 이중에 있는 손수건도 가지 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 치통이 생겨도 식초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식초를 음식물로 먹는 것은 괜찮으나 바르는 것은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규례였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안식법이 39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식일 규례에 매여 참 안식을 몰랐습니다. 머리카락 반쪽을 잘라가지고 뱀에게 쏘게듯이 안식일을 여러 규례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쁨의 날이요 복받은 날인데 그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되었

없는 희생 제물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두 개의 큰 이단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제일 강하게 싸운 적은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거나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날을 하나

“주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참 평안을 얻는 구별된 날”

죽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저들은 독신죄(瀆神罪, blasphemy)를 적용시키기도 하고, 세금을 내는가 안내는가도 물어보고, 도덕심을 테스트해 보려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시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2. 안식일 제도

안식일 제도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수다한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 신자만이 안식일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창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세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레되는 날에 쉬셨다고 하는 데서부터 안식일 제도가 주어졌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또 신명기 5:15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시므로 생명의 존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관념에 따르면 성경엔 안식일을 범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령, 다윗왕이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사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대로 하면 이것은 이삭을 자르는 일을 하였으니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의 의미는 전혀 없는

남께 기쁘게 해드리려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주님의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식당에도 안가고, 극장에도 안가고, 골프치러도 안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바치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쉬라

'89년 농어촌 전도대원 모집

전도위원회는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농어촌 전도대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참가자격: 본 교회 교인 중 특별히 헌직 교사 및 청년 계층의 남·여 성도들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70인 전도요원교육훈련 수료자 1기~11기생과 교회학교 교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송인원: 70명(10개 지역)

파송일자: 1차=7월24일~7월28일

2차=7월31일~8월4일

참가신청: 1989년 7월 18일까지 전도위원회로

전도위원회

선교사 인터뷰

애굽 파송 이준교 선교사

애굽파송 이준교 선교사가 일시 귀국했다. 사모님의 건강체크 및 진료를 위해 지난 6월 30일 귀국하여 현재 선교관 5층 게스트 하우스에 체재중인 이준교사는 오는 7월 26일경 선교현장인 애굽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준교사는 지난 79년 10월 31일 파송 이래 10년간 애굽현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83년 잠시 귀국하여 선교현황 보고를 했으

이준교사는 현지사역자를 앞세운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 개척사역을 중점적으로 선교하면서 10군데에 교회를 개척한바 있다.

또 이준교사는 애굽 복음주의신학교를 통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현재 동 신학교의 88-89학년도 학생 수는 1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에는 이집트학생을 비롯하여 수단



▲ 인터뷰하는 이준교 애굽선교사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개척 사역 계속 이름뿐인 크리스찬을 제1차 선교대상으로

며, 그후 만 6년만에 귀국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이슬람교가 국교인 애굽에서 선교사역을 한다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위한 영주권제도가 없고, 목사 신분으로는 거주 허가도 받을 수 없어 카이로 한인교회를 통한 노동허가 거주 비자를 받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애굽 전체 인구 중 일부에 불과한 기독교 교인 9백만명 중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반수인 450만명을 제1차적 선교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상황 가운데서도

학생 20명, 아랍권학생(쿠웨이트,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준교사는 동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 이준교사는 옥외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애굽형편에 따라 현지인교회 복음전파 사역을 위하여 교회당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88년 서울 올림픽 때에는 이집트, 수단 복음화협의회(초교파전도단체)에 특별회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충천교회 재정후원으로

2개 팀의 전도대를 서울올림픽 기간에 파송하여, 같은 언어권의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 있다.

현재 애굽내무성의 인정을 받은 「카이로 한인교회」를 선교기점지로서 이준교사의 선교사역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이준교사는 10년 동안 애굽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협력한 충천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사모님의 건강과 활력있는 애굽선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안내위원 여름복장 익명의성도가 기증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익명의 성도가 지난주간 본당 안내위원들이 착용할 여름복장 일체를 기증해 왔다.

바로잡음

지난호(제19호) 목회자 세미나 기사 중 제2학기 종강예배를 마치고 저녁식사 대접은 교회가 아니고 김영삼장로(손명순 권사)가 교역자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1989년도 여름계절학교 안내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989. 7.

구분 부별	행 사 명	주 제	주 제 성 구	주 제 찬 송	실시기간	실시장소	강 사	참 가 인 원(명)			
								학 생	교 사	기 타	계
1. 영 아 부	제15회 여름성경학교	믿음과 행함의 구원생활	시 121:1~8	예수님은 같이요 진리요	7.17~18	아 멘 홀	김연이	350	50	학부모 350	750
2. 유 치 부	제20회 여름성경학교	구원받은 새악		구원받은 새악	7.17~19	소석관 205호	주선애 · 정연희 한용관	400	70	학부모 400	870
3. 유 년 부	제36회 여름성경학교	도와주는 어린이	시41:1	94	7.17~19	소석관 212, 301, 307호	김경성	700	70		770
4. 초 등 부	제36회 여름성경학교	선한목자 예수님	요 10:11	442	7.17~19	소석관 407, 414호	양창근	700	70		770
5. 소 년 부	제36회 여름성경학교	새롭게 하소서	고후 5:17	493	7.24~26	충천기도원	김주아	700	70		770
6. 중 등 부	제27회 여름 수양회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라가라	벧후 3:18	507	7.26~29	충천기도원	김성윤 · 조정자	600	70		670
7. 고 등 부	제27회 여름 수양회	내 몸예 예수 그리스도만	빌 1:20	102	7.31~8.3	충천기도원	유영기 · 김광석 이유아	350	45		395
8. 대 학 부	제20회 여름 수양회	이렇게 사랑하라	요 13:18	414	7.10~13	충천기도원	오덕교 · 김익경 마일수	200	19		219
9. 청년 1부	제1회 여름 수양회	경건에 이끄기를 연습하라	딤후 4:7	507	7.16~19	충천기도원	이만열 · 김익경 김해규 · 이조웅	120	7		127
10. 청년 2부	제20회 여름 수양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히 4:14~16	513	7.16~19	충천기도원	이만열 · 장희종 송태근	50	5		55
11. 장년 1부	제1회 여름 수양회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 1:29	377	8.18~19	충천기도원	김학진	170	30		200
12. 장년 2부	제6회 여름 수양회	주 안에서 하나되자	엡 4:3~6	278	8.16~17	충천기도원	이원길	140	38	50	228
13. 장년 3부	제14회 여름 수양회	구원의 확신	롬 1:17	194	8.14~15	갈릴리홀	윤영탁	250	55		305
14. 소 망 부	제14회 여름 수양회	거룩한 백성의 생활	출 19:5~6	377	8.25~26	충천기도원	김영구 · 김정순	250	50		300
15. 직 전 부	제13회 여름 수양회	성숙으로 나아가자	히 6:1~2	350	8.3~5	충천기도원	송태근	150	35		185
16. 새가정부	제6회 여름 수양회	가정의 경건생활	창 2:22~24	305	6. 6	충천기도원	윤용규	65	15		80
17. 사 랑 부	제1회 여름성경학교	말씀과 순종	딤후 3:16	234	7.24~25	소석관 107호	김정자	50	50		100
18. 예비대부	제1회 여름성경학교	말씀을 힘써 배우는 사람이 되자	딤후 3:14	235	7.20~21	배다니홀 소석관 109호	임태주	50	28		78
								5,295	777	800	6,872

※계절학교(여름) 실시기간 중 교회차량(대형버스 · 유치원 콤비와 베스트)을 교육위원회에서 전용할 것임.

협력구역예배를 드리며

지난 금요일 우리 테헤란 1, 2, 3구역은 오랜만에 협력 구역예배를 부지역장이신 박명영 권사님덕에서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이제껏 권사님은 전세집에 사셨지만, 성전완공 현장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도 주실 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지난 5월에 권사님과 우리 테헤란 3구역 강명순 권찰님께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아담한 연립주택과 주공아파트를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구역 성도님들과 협력 구역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연로하신(70~78세) 권사님 내외분과 또한 부부의 老 성도님이 계시는데, 구역 예배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구역 성도님들께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모범을 보이시는데 오늘은 안양까지 가야되기에 자가용을 가지신 이순례 성도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기쁘게 승락을 하셨습니다. 아기(윤지웅) 어머니도 승용차로 오시라고 하고, 나는 1, 2구역 성도님들과 만나서 지하철로 사당역까지 가서 버스로 안양 권사님덕에 도착하니 식사준비를 하시던 권사님과 권찰

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잠시 후, 11시경에 승용차로 우리 구역 성도님들이 도착하셨는데 지웅이 엄마는 6~7만원 가량 들어있는 지갑을 동네 전화박스에 두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다시 돈을 찾으러 가기는 곤란하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위로하고는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 인도는 18세 때 폭발물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시고 두 손까지 잃어버린 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타고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님과 권찰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점심식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돌아올 때는 권사님께서 성도님 가정마다 사랑의 떡을 싸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다리가 불편하셔서 불참하신 이을남 할머니께 드릴 떡을 가지고 그 댁에 심방을 갔더니 옥수수를 바구니에 가득 삶아서 놓으시고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지갑을 잃어버렸던 지웅이 어머니께서 “구역장님! 지갑을 찾았어요!”라고 하면서

1교구 7지역 테헤란 3구역

“옥수수를 함께 들며 늘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회 목사님께서 “까마귀의 희생봉사”(눅 12:24)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왕상 17:6)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고, (창 8:6-7) 노아가 홍수 후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보내어 까마귀가 땅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으며, (욥 38:4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으로, 성도는 성경에 나타난 까마귀와 같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희생봉사하여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라는 말씀에 참석한 성도들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여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지갑을 구명가게 아주머니께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날 승용차로 함께 왔던 성도님들은 각각 그 가게에서 수박 한 통씩을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옥수수를 맛있게 먹으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남경자(집사·3구역장)

들어온 새책 소개 충현도서관서

● 교회사, 교회론 및 선교

· 교회성장 이해/도널드 맥가브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 교회론/박영선, 엠마오 · 일제하 한국 교회 소종파 운동 연구/김남식, 새순출판사 · 초대 교회사/유스토 곤잘레스, 은성 · 중세 교회사/유스토 곤잘레스, 은성 · 교회와 선교/서정운, 두란노 서원 · 교회의 선교적 본질/요하네스 블라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 화해의 아이/돈 리차드슨, 생명의 말씀사.

● 성경신학(구약 및 신학연구서 포함)

·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그리스도, 1: 구약 성경 중심, 2: 복음서 중심, 3: 역사서 중심, 4: 서신서 중심/프란시스 브라이쉬, 나침반사 · (구약적) 이스라엘의 종교/최종진, 소망사 · 구약 연구 입문/하워드 보스, 엠마오 · 어떻게 예언서를 읽을 것인가/조엘 그린,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구약 성경개론/노르만 가이슬러, 엠마오 · 신약성서의 메시지/A.M 헨터, 은성 · 신약 성서의 중심 메시지/요아힘 예레미야스, 은성.

● 기독교 교리신학(예수그리스도와 신론포함)

· 역사적 예수연구 무엇이 문제인가/요단 출판사 · 그리스도의 십자가/존 스타트,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7월 21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29과 올바른 헌금

성경: 고후 9:1-15

요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찬송: 356, 353, 346장

1. 성도의 물질관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 세상 재물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 재물은 수고하고 땀흘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지지, 불의한 방도로 얻으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가진 재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딤후 6:17)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골 3:5) 내게 재물이 많은 적은 오히려 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바로 쓰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재물로 선한 사업에 풍성히 드러 사용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이 되는 것이다.(마 6:19-33)

2. 헌금의 뜻

물질을 바로 쓰는 생활의 표본적인 시금석은 바로 헌금생활에 있다. 그래서 우선 헌금은 우리 신앙의 증거요 고백이 된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헌금을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 보다 물질을 더 크게 여기고 사랑하는 “물질 우상 숭배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마 6:24)

또한 헌금은 우리의 헌신생활의 증거가 된다. 돈, 재물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얻어진다. 그러므로 몸의 수고를 통해 얻어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3. 헌금의 방법

오늘 본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를 위시한 아가야지방 성도들의 헌금드리는 자세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1) 미리 정성껏 준비하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법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것이다. 아가야 성도들은 일년전부터 헌금을 예비하므로 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다(본문 2절). 각종 헌금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라.

(2) 즐거움으로 드려라: 헌금, 헌물은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헌물을 받으라고 하셨다(출 25:2).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고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후 9:7).

(3) 믿음으로 드리라: 모든 헌금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 적게 삼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삼는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를 믿고 있지 않은가!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잠 11:24, 25)하였다. 하나님의 사업에 영적 투자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4) 규칙적으로 드리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저축하여 두어서...(고전 16:2) 헌금의 자세는 기분에 좌우되거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헌금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드리는 정성이야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물이 되는 것이다.

■ 함께 생각합시다

1. 이 세상 재물에 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하는가?(딤후 8:17-19)
2. 헌금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증표가 되는가?
3.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가?

■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올바르게 쓰게 하시되 우리 신앙과 감사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증표가 되면서 하나님께 열납되는 헌금으로 드리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헌금을 미리 준비하면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